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9/11℃ 목포 9/11℃ 여수 9/11℃

단기 4343년 (음력 12월 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79호 1판 2010년 1월 20일 수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떼강도 활개 지진보다 무섭다"

곳곳 구호품 강탈 '치안 패닉'

한국구조대 생존자 찾기 사투

광주 출신 119구조대 김광식대원이 전하는 아이티 참상

"최악의 지진 발생 후 엿새가 지난 아이티는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온 종일 콘크리트 더미를 뒤지고 있지만 치안도 엉망이고 구호품도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아이티 지진 참사 현장에 파견된 119국제구조대 김광식(37) 소방교가 19일 새벽(한국시간)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메가톤급' 지진이 휩쓸고 지나간 아이티 현지의 참상을 이같이 알렸다.

김 소방교는 "우리(119) 본부가 있는 솔레이시티 상공에는 하루 종일 식량을 실은 미군 헬리콥터가 맴돌고 있어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식량분배와 환자 구조 및 치료는 물론, 기본적인 치안유지 마저 이뤄지지 않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라고 전했다.

지진으로 초토화된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일대가 구호 작업으로 혼란스러운 사이 치안 공백을 틈탄 폭력 조직들이 활개를 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도소가 붕괴되면서 수감돼있던 강력범 등 재소자 4천여명이 이탈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이에 대처해야 할 아이티 경찰은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또 이 지역에 주둔 중이던 브라질 파병 유엔평화유지군도 145명 중 18명을 잃은 데다 유엔 건물이 무너지면서 각종 무기와 장비 등이 무방비 상태로 약탈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그와 위성전화를 통해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수도 포르토프랭스에는 식량 등을 싣고 상공을 배회하는 헬리콥터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귓전을 울렸다. 심한 잡음 너머로 들려오는 김 소방교의 목소리는 사고 현장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를 그대로 전해 주었다.

그는 "조금 전에는 한국에서 온 선교단원 일부가 구호품을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호품 보급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아이티에 파견된 119국제구조대는 김 소방교 외에도 강철수(54) 대장 등 25명의 구조대원과 2마리의 구조견이 현지에서 사고 수습을 돕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 출신인 김 소방교와 함께 여수 출신 이용진(35) 소방교, 영암 출신 최종춘(42) 소방장 등 광주·전남 출신 대원들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아이티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강 대장 등 대원 22명과 함께 디지털 내시경과 매몰자 탐지기 등 첨단 장비와 구조견을 활용해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조대는 한 지역에 투입돼 통상 2개 조로 나뉘어 수색 등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조대의 임무는 우선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건물을 중심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는 것이며, 시신수습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구조대는 17일 포르토프랭스에 도착해 현장 지휘소를 차리고 첫 활동으로, 아이티 중앙은행 붕괴 현장을 수색했다. 구조대는 이틀간에 걸친 수색 작업을 통해 총 29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소방방재청은 밝혔다. 구조대는 오는 25일까지 구조 활동을 벌인 뒤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출신 김광식대원 등 한국 119구조대가 19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무너져내린 건물더미를 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아이티에 PKO 파병 검토

정부는 19일 아이티 구호활동과 치안유지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지 치안수요가 커지면서 유엔이 각국에 파병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PKO 파병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오전 반기문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각 회원국에 1천500명의 경찰인력과 2천명의 평화유지군을 추가 파병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

시·도지사 후보 3월 경선 가닥

민주 지방선거기획단 자료 시민배심원·경선 시기 등 논란

민주당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이르면 3월 초순에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경선 방법과 시기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사 4면〉

19일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작성한 '6·2 지방선거 승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는 전략적으로 릴레이 경선을 하게 된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절대 우세지역과 영남 일부 등 인물 취약지역에서 3월 초~중순에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물꼬를 트는 것으로 세몰이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3월 중하순에는 한나라당과의 경합이 예상되는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 등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 두 달 전인 4월 초~중순에는 선거 연합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서울, 경기, 인천과 부산의 시·도지사 경선을 추진, 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 출마 예정자 일부는 경선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도민들에게 공정하고 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려면 4월 경선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의 주장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 후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도입을 검토 중인 '시민공천배심원제'도 논란이다.

정세균 대표, 김민석 지방선거기획단장 등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후보 압축 방법(컷-오프) 등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방선거 조직에 합류할 예정인 강기정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 여론조사 방식을 배제하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시민공천배심원제 평가 점수 60%와 당원 투표 결과 40%를 반영,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후보들은 거부 반응을,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는 후보들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연대와 관련, 이달중에 선거연합 원칙 합의 및 연합추진기구 구성을 마무리 짓고 다음달에 범민주후보 연합공천 원칙 및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동욱·최권일 기자 tuim@

기아차 임협 타결…파업 철회

기아자동차 노사간 임금협상이 1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밤 예정됐던 파업이 철회돼 조업은 정상화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경기 소하리공장에서 임금교섭을 재개, 6시간동안 마라톤협상 끝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동결 ▲성과급 300% ▲격려금 500만원 지급 ▲올해 1월부터 호봉당 5천원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신(新)호봉표 적용 등이다. 주간연속 2교대(심야노동 폐지)와 월급제는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8개월동안 끌어온 협상이 전격 타결된 것은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한 덕분이다.

사측은 당초 제시했던 '기본급 동결, 성과급 300%, 일시금 460만원'에서 신호봉표를 적용하고 일시금을 500만원으로 높였다.

노조 역시 그동안 요구했던 '일시금 500만원+α'에서 '+α'를 철회했고, 신호봉표 적용도 2009년에서 2010년으로 1년 양보했다.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수위를 높였던 전 공장 부분 파업을 하루 만인 19일 야간 근무조부터 전면 철회했다.

노조는 합의 내용에 대해 20일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21일 찬반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전격적인 합의에는 파업이 길어지면서 눈덩이 처럼 불어난 손실액이 노사 양측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사측은 관계자는 "해를 넘긴 파업으로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액수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아차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며 파업을 강행했다.

이날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기아차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됐다. 특히 올 3월 출시 예정인 스포티지 후속 모델 SL의 양산과 쏘울 증산도 차질 없이 이뤄지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